

# 李白<贈>詩 譯解 및 考察(5)\*

— (제22수에서 제26수까지)

趙得昌·趙成千\*\*

##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제22수 <제갈무후전>을 읽고 감회를 써서 장안의 현위 최숙봉 형제에게 드림
  - 2.2 제23수 온천궁으로 황제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랜 벗을 만남
  - 2.3 제24수 황제의 수레가 溫泉宮을 떠난 뒤 은자 양씨에게 드림
  - 2.4 제25수 곽장군에게 드림
  - 2.5 제26수 열네 번 제 배씨에게 드림
3. 결론

## 1. 서론

李白的 가장 이른 시문집은 唐代 李陽冰이 편찬한 《草堂集》 10권이었는데 산일되었다. 현재 통행본은 '宋蜀本'으로 北宋 宋敏求(1019~1079)가 증각한 《李太白文集》 30권이다. 송측본 《이태백문집》은 '古風' 59수와 樂府詩를 실은 후 그 다음부터는 내용별로 歌吟, 贈詩, 寄詩, 別詩, 酬答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元代 蕭士贇의 《分類補注李太白詩》, 清代 王琦의 《李太白詩集注》

\* 이 연구는 2019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19-0060)

\*\* 協成大學校 中國通商·文化學科 教授(主著者 chodc38@nate.com)·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交信著者 sczhao@hanmail.net)

등의 주요 판본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였다. 송축본 《이태백문집》 제8권에는 ‘贈詩’를 설정하여 123수를 신고 있다. ‘贈詩’란 자신이 느낀 바, 표현할 바, 생각한 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시로 써서 친구 및 지인에게 보내어 자신의 감정과 뜻을 기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의 제목에 ‘贈’字가 들어 간 경우가 많다. 이백의 ‘贈詩’에서는 그가 시를 통해서 표현한 情志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교제한 친구나 지인 등과의 관계 및 교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이백의 ‘贈詩’ 완역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그래서 ‘贈詩’에 대한 역주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中國學論叢》 등에 발표하였다.<sup>1)</sup> 본고는 이백의 ‘贈詩’ 제22수에서 제26수를 역주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底本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그 형식은 原文을 제시하고 번역을 하였으며 註釋을 달았으며 이어 校記, 詳釋, 解說을 붙였다. 번역은 자구의 直譯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의 순통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意譯을 한다. 시적인 어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註釋은 자구의 풀이는 물론 그와 관련된 用例 및 典故 등을 들어 설명하고 그 전적의 원문을 게재하여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제고한다. 校勘은 詹鏞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교감이 있을 경우 추가한다. 詳釋은 逐字 번역을 더욱 상세하게 보충하면서 행간의 함의를 풀어내어 설명한다. 解說은 시에 대한 해제, 연대, 역대 의견 등을 덧붙여 전체 시를 해설하여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본 연구는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외에 국내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 및 국외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및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등을 참고하고 검토하여 그 이동을 고찰한다.

1) ‘贈詩’의 역해 결과는 다음과 같다. <李白 <贈>詩 譯解(1)>(《中國學論叢》 제48집(2015.5.30.)), <李白 <贈>詩 譯解(2)>(《中國語文論叢》 제69집(2015.6.30.)), <李白 <贈>詩 譯解(3)>(《中國文化研究》 제29집(2015.8.30.)), <李白 <贈>詩 譯解(4)>(《中國學論叢》 제50집(2015.11.30.))

## 2. 본론

### 2.1 제21수 <제갈무후전>을 읽고 감회를 써서 장안의 현위 최숙봉 형제에게 드림(讀諸葛武侯傳書懷贈長安崔少府叔封昆季)<sup>2)</sup>

漢道昔云季, <sup>3)</sup>	예전에 한나라 국운이 말기라 할 때
群雄方戰爭.	군웅들이 바야흐로 전쟁을 벌였네.
霸圖各未立,	패권 도모 각기 이루지 못하고
割據資豪英. <sup>4)</sup>	할거하며 영웅호걸에 의지하였네.
赤伏起頽運, <sup>5)</sup>	예언서 받고 국운 일으키고자 할 때
臥龍得孔明. <sup>6)</sup>	와룡선생 제갈공명을 얻었다네.

- 2) 諸葛武侯傳: 《三國志·蜀書·諸葛亮傳》을 말한다. ○少府: 관직명. 縣尉의 별칭. ○叔封: 崔叔封을 말하며, 그는 長安縣尉를 지냈다. 《新唐書》 권72 <宰相世系表二·下>에 清河崔氏의 大房(역주: 清河崔氏에는 大房·小房·鄭州·許州鄆陵·青州의 구분이 있다)에 叔封이 있는데, 그는 同州刺史 崔子源의 아들(崔氏清河大房有叔封, 乃同州刺史崔子源子)이라는 언급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인 듯하다. ○昆季: 형제의 의미. 이 시는 이백이 제갈량을 자신에 비유하고, 최 씨 형제를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崔州平和 돈독한 교유관계를 맺는 崔瑗에게 비유하고, 또 자신과 이들과의 교제를 판포지교에 비유한 것이다. 이 시를 통해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 일종의 干謁詩이다.
- 3) 漢道: 漢나라의 국운, 國祚. ○季: 말년. ○群雄: 袁紹·呂布·袁術·曹操·公孫瓚 등을 말한다.
- 4) “割據資豪英”句: 군웅할거 당시에 군웅들이 賢才와 명장들에게 힘입은 것을 말한다. ○割據: 지역을 나누어 각자 한 지역의 패주가 되다. ○資: 의거하다. 힘입다. ○豪英: 당시의 賢才와 名將을 가리킨다.
- 5) 赤伏: 赤伏符 즉 연서. 符는 미래를 예언하는 글. 赤伏符는 원래 劉秀가 황제가 될 것이라 예언한 연서. 《後漢書·光武帝紀》에 “劉秀가 長安에 있을 때, 그의 동문 彊華가 關中으로부터 赤伏符를 받들고 왔는데 거기에 ‘劉秀가 군사를 일으켜 무도한 자를 도벌하니, 四夷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龍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28년 되는 무렵에 火德으로 임금이 되리라’(光武先在長安時, 同舍生彊華自關中奉<赤伏符>曰: ‘劉秀發兵捕不道, 四夷雲集龍鬪野. 四七之際火爲主.)’”라는 기록이 있다. 이의 원문 ‘四七之際에 대해 李賢은 “四七은二十八이다. 高祖에서 光武 초년에 이르기까지 도합 228년이니, 바로 四七之際이다(四七, 二十八也, 自高祖至光武初起, 合二百二十八年, 卽四七之際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따라서 이를 ‘228년째 되는 해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광무제는 25년 제위에 올랐다. ○起頽運: 漢朝의 쇠락한 국운을 만회하다.

當其南陽時,	그가 남양에 묻혀 지낼 때
隴畝躬自耕. <sup>7)</sup>	밭이랑 고르며 몸소 농사 지었네.
魚水三顧合, <sup>8)</sup>	삼고초려로 물고기와 물이 만나자
風雲四海生. <sup>9)</sup>	천하에 풍운이 일어났다네.
武侯出岷蜀, <sup>10)</sup>	제갈공명은 파촉에 나라 세우고
壯士吞咸京. <sup>11)</sup>	웅대한 뜻으로 關中을 정벌하였네.
何人先見許,	누가 먼저 그를 알아주었던가?
但有崔州平. <sup>12)</sup>	오직 최주평 뿐이었네.

- 6) 臥龍: 원래는 누워 있는 용이란 뜻으로, 지금은 초야에 묻혀 있으나 때를 만나면 큰일을 할 사람을 비유. 당시 제갈량을 와룡선생으로 불렀다. ○孔明: 제갈량의 자. 諸葛亮(181~234)의 호는 臥龍이며 徐州 瑯琊 사람으로 삼국시대 때 蜀漢의 승상을 지냈다. 걸출한 정치가·군사가·산문가·서예가로 武鄉侯로 봉해졌다. 중원 개척에 나섰다가 五丈原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忠武侯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東晉에서는 그의 군사적 재능을 기리기 위해 武興王으로 봉해졌다. 그의 <出師表>와 <誡子書>는 인구에 회자되는 명문이다.
- 7) “當其南陽時, 隴畝躬自耕.”二句: 제갈량이 포의로서 초야에 묻혀 농사지었던 상황을 말한다. 諸葛亮的 <出師表>에 “신은 본래는 포의 신분으로서 몸소 南陽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臣本布衣, 躬耕于南陽.)”라고 하였다. ○南陽: 이 지역이 河南 南陽인지 湖北 襄陽인지에 대해쟁론이 있다. 詹鍇은 지금의 湖北 襄樊市로 보고 있다.
- 8) “魚水三顧合”句: 유비가 제갈량을 초빙하기 위해 삼고초려한 것을 말한다.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물고기와 물의 관계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대한 고사가 《三國志·蜀書·諸葛亮傳》에 나온다. “유비가 드디어 제갈량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무릇 세 차례 방문하여서야 볼 수 있었다. ……이에 (유비와)제갈량과의 정이 날로 깊어졌다. 관우·장비 등이 별로 좋아하지 않자, 유비가 다독이며 일렀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원컨대 제군들은 이에 관해 다시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에 관우·장비가 불평을 멈추었다.(先主遂詣亮, 凡三往乃見. ……於是與亮情好日密. 關羽·張飛等不悅, 先主解之曰: ‘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願諸君勿復言.’ 羽·飛乃止.)”
- 9) “風雲四海生”句: 제갈량이 유비를 보좌하여 四海에서 위풍당당한 功業을 세운 것을 말한다.
- 10) 武侯: 제갈량. 建興元年(223年)武鄉侯에 봉해졌다. ○岷蜀: 巴蜀. 蜀에는 岷山·岷江이 있었기 때문에 岷蜀이라 하였다.
- 11) “壯士吞咸京”句: 제갈량이 關中을 복벌한 것을 말한다. 제갈량이 여섯 차례 祁山에 출전하여 關中을 복벌하였기 때문에 ‘吞咸京’이라 하였다. ○咸京: 秦·漢의 수도 咸陽·長安일대. 삼국시대에 魏가 거점으로 삼은 곳.
- 12) “但有崔州平”句: 오직 崔州平만이 제갈량을 알아보았다는 뜻. ○崔州平: 제갈량의 지기. 일찍이 제갈량을 管仲·樂毅로 인정하였다. 《三國志·蜀書·諸葛亮傳》에 “제갈량의 자는 孔明, 琅邪 陽都사람이다. ……몸소 농사를 짓고, <梁父吟>을 좋아했다. 신장은 八尺이고, 대양 管仲·樂毅에 자신을 비유하였지만, 당시에 이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博陵의 崔州平, 潁川의 徐元直만이 제갈량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진실로 그러하다고 여겼다(諸葛亮字孔明, 琅邪陽都人也. ……躬耕隴畝, 好爲<梁父吟>, 身長八尺, 每自比於管

余亦草間人, <sup>13)</sup>	나 역시 초야에 묻혀 있는 몸이지만
頗懷拯物情. <sup>14)</sup>	자못 세상 구할 뜻 품었다네.
晚途值子玉, <sup>15)</sup>	만년에 최숙봉 그대 만났으니
華髮同衰榮. <sup>16)</sup>	백발 되도록 고락을 함께 하려네.
託意在經濟, <sup>17)</sup>	경국제민에 뜻을 두었으니
結交爲弟兄.	친교 맺어 형제 되고자 하네.
無令管與鮑, <sup>18)</sup>	관중과 포숙만이

仲·樂毅, 時人莫之許也, 惟博陵崔州平·潁川徐元直與亮友善, 謂爲信然.)”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백이 자신을 제갈량에 비유하고, 崔叔封으로 崔州平을 비유하였다.

- 13) 草間人: 출사하지 않았을 때의 布衣의 신분인 사람. 朱諫은 “은거하며 아직 출사하지 않고 전야에 묻혀있는 사람(隱而未仕, 伏於田野者也.)”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百花文藝出版社, 1996년, 1342쪽, 재인용)
- 14) 拯物情: 세상을 구제하려는 감정. ○拯: 구하다. ○拯物: 救世의 뜻.
- 15) 晚途: 만년. ○值: 만나다. ○子玉: 東漢 사람 崔瑗. 子玉은 그의 자이다. 《後漢書·崔瑗傳》에 “瑗은 그 자가 子玉인데 일찍이 고아가 되었지만, 뜻을 굳건히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그 부친의 업을 극진하게 전할 수 있었다. ……扶風의 馬融, 南陽의 張衡과 특히 서로 친하게 우정을 나누었다(瑗字子玉, 早孤, 銳志好學, 盡能傳其父業. ……與扶風馬融·南陽張衡特相友好.)”라고 하였다. 여기서 崔瑗으로 崔叔封을 비유하였다.
- 16) “華髮同衰榮”句: 두 사람의 우의가 흰 머리가 되도록 변하지 않고, 함께 동고동락함을 말한다. ○華髮: 머리가 희끗희끗하다. ○衰榮: 쇠락과 영광. 고락.
- 17) 託意: 뜻을 두다. ○經濟: 經國濟民, 즉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다. 《晉書·殷浩傳》에 “죽하는 자신의 깊은 학식을 오랫동안 연마하고, 사고는 세상 이치를 통달하고 정밀하여 일어나 밝히신다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할 만합니다(足下沈識淹長, 思綜通練, 起而明之, 足以經濟.)”라고 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沈識淹長’을 ‘본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넓다’, ‘思綜’을 ‘생각’, ‘通練’을 ‘경험이 많아서 인정과 세사를 두루 알다’로 풀이한 경우도 있다. 《漢語大詞典》에서는 “思綜은 才思와 같다”라고 풀이하였다.
- 18) 管, 鮑: 管仲과 鮑叔牙. 관중과 포숙아의 고사가 《史記·管晏列傳》에 실려 있다. “管仲夷吾는 潁水 사람이다. 젊었을 때 일찍이 鮑叔牙와 교유하였는데, 포숙은 관중의 유능함을 알아주었다. 관중은 가난하여 일찍이 포숙을 속였지만 포숙은 끝까지 관중을 잘 대하면서 말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포숙은 齊나라의 公子小白을 섬기게 되었고, 관중은 공자 紂를 섬기게 되었다.小白이 桓公으로 즉위하고, 紂가 죽자 관중은 최수가 되었다. 그러나 포숙은 결국 관중을 추천했다. 관중이 기용되어 제나라 정치를 맡으니, 제나라 환공은 패주가 되어 아홉 번 제후들을 규합하여 천하를 단번에 바로 잡았다. 관중의 계책 덕분이었다. 관중이 말하였다. ‘내가 처음 어려웠던 시절에 일찍이 포숙과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나눌 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나 포숙은 나를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나의 가난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일찍이 포숙을 대신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여 그를 더욱 곤궁하게 하였으나 포숙이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다. 시운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을 벼슬하여 세 번을 군주에게 쫓겨남을 당했으나 포숙은 나를 현명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 전쟁에 나갔다가 세 번을 달아났으나 포숙은 나를 비겁하다고

千載獨知名.

천년동안 이름나게 하지 말지어다.

<校記>

제목 중 ‘書’가 蕭本<sup>19</sup>·玉本<sup>20</sup>·郭本<sup>21</sup>·劉本<sup>22</sup>·朱本<sup>23</sup>·胡本<sup>24</sup>에는 모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2구의 ‘士’가 咸本<sup>25</sup>·蕭本·郭本·全唐詩本<sup>26</sup>·王本<sup>27</sup>에는 모두 ‘志’로 되어 있다. 詹鐸은 ‘志’가 옳다고 하였다.

제14구의 ‘有’가 胡本에는 ‘見’으로 되어 있다.

제15구의 ‘草間人’에 宋蜀本·蕭本·繆本<sup>28</sup>에는 “다른 곳에서는 士로 되어 있다(一作士)”라는 주가 있지만,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에는 ‘一作士’라는 주가 없다.

제17, 18구 “晚途值子玉, 華髮同衰榮.”에 대해 咸本の 주에서는 “어떤 곳에는 이 두 구가 없다(一本無此二句.)”라고 하였다. 郁賢皓는 이 주가 옳다고 하였다.

하지 않았다.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 규가 패하여 소홀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는 유폐되고 불잡혀 굴욕을 당하였으나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사소한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나 천하에 공명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요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管仲夷吾者, 潁上人也. 少時嘗與鮑叔牙游, 鮑叔知其賢. 管仲貧困, 嘗欺鮑叔, 鮑叔終善遇之, 不以爲言. 已而鮑叔事齊公子小白, 管仲事公子糾. 及小白立爲桓公, 公子糾死, 管仲囚焉. 鮑叔遂進管仲. 管仲既用, 任政於齊, 齊桓公以霸, 九合諸侯, 一匡天下, 管仲之謀也. 管仲曰: ‘吾始困時, 嘗與鮑叔賈, 分財利多自與, 鮑叔不以我爲貪, 知我貧也. 吾嘗爲鮑叔謀事而更窮困, 鮑叔不以我爲愚, 知時有利不利也. 吾嘗三仕三見逐於君, 鮑叔不以我爲不肖, 知我不遭時也. 吾嘗三戰三走, 鮑叔不以我爲怯, 知我有老母也. 公子糾敗, 召忽死之, 吾幽囚受辱, 鮑叔不以我爲無恥, 知我不羞小腸而恥功名不顯於天下也.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

19) 元刻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20) 嘉靖25年(서기 1545년) 玉几山人의 校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21)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22)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 중 《李翰林全集》 42卷.

23) 隆慶六年(서기 1572년)에 간행된 朱諫의 《李詩選注》 13卷 및 《李詩辨疑》 2卷.

24) 淸順治7年(서기 1650년) 胡震亨의 《合刻李杜詩通》 중 《李詩通》 21卷.

25)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26) 上海古籍出版社가 영인한 揚州詩局的 刻本 《全唐詩》와 中華書局的 點校本 《全唐詩》.

27)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28) 淸 繆曰芑의 송축본을 영인한 《李翰林集》 30卷.

제21구 ‘無’가 蕭本·玉本·朱本·全唐詩本에는 ‘毋’로 되어 있다.

### <詳釋>

동한 말년, 군웅들이 분분하게 일어나 용쟁호투를 벌였다. 패업을 도모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하고, 각자 할거하며 왕이라 칭하며 영웅호걸들의 지모를 빌었다. 유비는 광무제가 한나라의 국운을 만회하고자 했던 것처럼, 제갈공명을 얻어 보좌를 받았다. 제갈공명이 南陽에 있을 때, 몸소 밭두둑 가운데서 농사를 지었다. 유비는 제갈공명의 茅屋을 삼고초려해서, 水魚之交의 관계가 되자, 천하에 그 공적을 세웠다. 제갈공명은 파촉에 유비를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웅대한 뜻을 펼쳐서 관중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제갈공명이 아직 현달하지 못하여 초야에 묻혀 지낼 때, 누가 그를 알아보고 인정해주었는가. 바로 최주평이다.

나도 현재는 초야에 묻혀있는 사람이지만, 가슴속에는 경국제민의 뜻을 품고 있다. 만년에 그대들 崔州平과 崔瑗과 같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백발이 되도록 고락을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들 모두 경국제민에 뜻을 두고 있으니, 형제 같은 친구가 되어, 우리들의 우정이 관중과 포숙아처럼 영원무궁토록 역사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 <解説>

이 시는 郁賢皓 등은 이백이 開元초기에 장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겼다.<sup>29)</sup> 그러나 “晚途值子玉, 華髮同衰榮.”에 의거하면, 반드시 開元연간에 지은 것이라 할 수 없다. 安旗는 開元18년(740) 가을에 지은 것으로 여겨, ‘晚途’를 ‘末路’로 해석하였다. 詹鍈은 安旗의 견해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며, 이 시가 반드시 “개원연간에만 지어진 것이 아니다(未必開元年間詩)”<sup>30)</sup>라고 하였다. ‘功成身退’는 이백의 주요사상이고, 이는 그의 전체 시에서 표현되

29)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臺北三民書局, 2011년, 451쪽.

30)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44쪽.

었다. 때문에 이 시를 개원연간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詹鏞 처럼 이 시의 창작 연대는 탐구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 시는 일종의 干謁詩이다. 전반 4구는 한말의 군웅할거 상황 및 제갈공명이 처한 환경을 烘托의 수법으로 삼았다. 이어 10구는 정면에서 <제갈무후전>을 드러내어, 제갈공명이 포의로서 초야에 묻혀 농사지었던 상황, 유비가 삼고초려한 것, 수어지교의 관계로, 제갈공명이 유비를 보좌하여 촉한을 건국한 것, 웅대한 뜻을 펼쳐 關中을 정벌하고 천하통일을 도모한 것을 묘사하였다. 그러면서 그를 가장 일찍 알아보고 인정해준 사람은 최주평이라 하였다. 끝 8구는 자기 또한 당시의 제갈공명처럼 포의의 신분으로 초야에 묻혀있지만, 뜻은 經國濟民에 있으니, 당시 포숙아가 관중을 천거한 것처럼 친구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이로써 이 시 제목의 “장안의 현위 최숙봉 형제에게 올리”는 뜻을 드러내었다.

시 가운데 崔州平·鮑叔牙으로 崔叔封형제를 비유하고, 은근히 제갈공명·管仲으로 자신을 비유하였다. 이로써 천거에 대한 희망, 功業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기탁하였다. 이러한 비유에 대하여 近藤元粹(역주: 1850-1922, 明治-大正時代의 일본 한학자)는 《李太白詩醇》 권2에서 “崔州平으로 崔少府를 비유한 것은 묘한 점이다. 언외에 제갈공명에게 자기를 비유한 뜻이 있으니, 포부가 생각해볼 만하다”, “제갈공명이 管仲·樂毅에게 자기를 비유하였다. 때문에 또한 管仲·鮑叔牙로써 수습하였으니, 더욱 그 묘한 점을 드러내었다”<sup>31)</sup>고 평하였다.

www.kci.go.kr

31) “以崔州平比崔少府，是其巧處。言外有自比孔明之意，抱負可想”。“孔明自比管·樂，故亦以管·鮑爲收束，益見其巧。”(詹鏞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1344쪽. 재인용)

## 2.2 온천궁으로 황제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랜 벗을 만남(溫泉侍從歸逢故人)<sup>32)</sup>

漢帝長楊苑,<sup>33)</sup>

漢成帝가 장양원에서

誇胡羽獵歸.<sup>34)</sup>

많은 짐승 사냥해 와서 오랑캐에게 자랑하네.

- 32) 溫泉: 앞 시 <駕去溫泉宮後贈楊山人>에 나오는 온천궁을 가리킨다. ○侍從: 황제를 모시고 수행하다. 詹鏐는 전문적인 시종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班固의 <兩都賦序>의 “한무제와 한선제 때에 이르러, 예관을 숭상하고, 經籍을 고증하였다. 경성 안에 경전을 교감하는 金馬門과 도서를 수장하는 石渠閣을 설치하고, 경성 밖에는 음악을 관리하는 악부와 협률을 담당하는 부서를 세워 끊어진 것을 계승하여, 국가의 대업을 광채가 나게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기뻐하고 안락하였으며, 복된 징조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문장으로 모시는 신하들 예를 들어 司馬相如, 虞丘壽王, 東方朔, 枚臯, 王褒, 劉向 등은 조석으로 의문하며, 날마다 달마다 글을 지어 황제에게 바쳤다(至於武宣之世, 乃崇禮官, 考文章, 內設金馬·石渠之署, 外興樂府協律之事, 以興廢繼絕, 潤色鴻業. 是以衆庶悅豫, 福應尤盛, ……故言語侍從之臣, 若司馬相如·虞丘壽王·東方朔·枚臯·王褒·劉向之屬, 朝夕論思, 日月獻納.)”에서 언급된 뜻을 취하였다고 하며, 李白이 司馬相如와 揚雄 등으로 자신을 빗댄 것이라고 하였다.(詹鏐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53쪽) ○故人: 성명 미상. 아마도 장안에 와서 벼슬을 구하고자 했던 벗인 듯하다.
- 33) 漢帝: 漢成帝. ○長楊苑: 秦代와 漢代 때의 궁전 명칭. 옛 터가 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周至縣 동남쪽에 있다. 楊은 揚으로 쓰기도 한다. <三輔黃圖·秦宮>에 “長楊宮은 지금 藍屋縣에서 동남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원래는 秦代의 옛 궁전이었는데, 漢代에 와서 수리하여 황제의 나들이에 대비하였다. 궁중에 수양머들이 수백 평 정도 있어, 이로 인해 궁의 명칭이 되었다. 궁문은 射熊館이라고 하였다. 秦漢 시기 유럽하던 곳이었다(長楊宮在今藍屋縣東南三十里, 本秦舊宮, 至漢修飾之以備行幸. 宮中有垂楊數畝, 因爲宮名; 門曰射熊館. 秦漢遊獵之所.)”라고 하였다.
- 34) “誇胡羽獵歸”句: 이 구는 <漢書·揚雄傳>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武帝께서 上林苑을 크게 넓히시니, 동남쪽으로는 宜春宮, 鼎胡宮, 御宿苑, 昆吾宮에 이르고, 終南山 근처까지 이르렀습니다. ……유람에는 사치스럽고 화려했으며, 기묘함과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또 후대의 제왕들이 前代의 화려함을 다시 숭상하거나 혹은 선대가 쌓은 화려한 泉臺를 허문 것과 같이 折中의 태도를 취하지 못할까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수렵의 기회를 타 賦를 지어 그것을 諷諫하고자 합니다. ……황제께서는 나라에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오랑캐들에게 크게 자랑하고자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어 右扶風(역주: 관직명)에게 명하시어 백성들을 종남산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때 농민들은 이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저 雄은 황제를 수행하여 射熊館에 갔다가, 돌아와서 <長楊賦>를 지어 올렸습니다. 붓과 먹이 있어야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翰林으로 主人을 삼고, 子墨으로 빈객을 삼아 풍간하고자 합니다.(武帝廣開上林, 東南至宜春·鼎胡·御宿·昆吾, 旁南山. …… 游觀侈靡, 窮妙極麗. ……又恐後世復修前好, 不折中以泉臺, 故聊因校獵, 賦以風之. ……上將大誇胡人以多禽獸. 秋, 命右扶風發民入南山. ……是時, 農民不得收斂. 雄從至射熊館, 還, 上<長楊賦>. 聊因筆墨之成文章, 故藉翰林以爲主人, 子墨爲客卿以風.) ○羽獵: 羽箭으로 사냥하다. 詹鏐은 이백이 이 당시에 翰林院에 있어 翰林을 주인으로 삼은 <長楊賦>를 연상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詹鏐 主編, 《李白全

子雲叨侍從, 35)	양웅은 황제 따라갔다
獻賦有光輝, 36)	장양부 바쳐 빛을 발하였네.
激賞搖天筆, 37)	황제는 천필 휘둘어 극력 칭찬하고
承恩賜御衣, 38)	황은을 받아 어의를 하사받았네.
逢君奏明主,	그대를 만났으니 황제께 추천하여
他日共翻飛, 39)	훗날 함께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 &lt;校記&gt;

제5구의 ‘激賞’이 郭本에서는 ‘之爲’로 되어 있는데, 詹鏞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集校注彙釋集評3》, 1354쪽)

- 35) 子雲: 漢代 揚雄의 字.
- 36) 獻賦: 揚雄이 <長楊賦>를 지어 바친 것을 가리킨다. 郁賢皓는 이백이 양웅을 자처하고 있으므로 이백이 황제에게 부를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때 바친 부가 <大獵賦>였을 지 모른다고 하였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455쪽)
- 37) 激賞: 극력 칭찬하다. <陳書·文學傳>에 “후주가 업을 이어서는 문장을 극히 숭상하고, 널리 학문과 기예를 구하자, 뛰어난 문장들이 모두 모였다. 매번 신하들의 表와 疏, 그리고 임금에게 바쳐진 賦와 頌을 친히 살피고 보고서는 그 중 문장이 뛰어난 것이 있으면, 친필로 써서 상을 주고 격려하고 작위를 더해주었다(後主嗣業, 雅尙文詞, 傍求學藝, 煥乎俱集. 每臣下表疏, 及獻上賦頌者, 躬自省覽, 其有辭工, 則神筆賞激, 加以爵位.)”라고 하였다. ○天筆: 황제가 사용하는 붓. 孔稚珪 <上新定法律表>의 “힘써 비취보고 깊이 살피니, 확실히 황제의 붓에서 비롯된 것이다(聖照玄覽, 斷自天筆.)”에 그 용례가 있다.
- 38) 賜御衣: 어의를 하사하다. 楊齊賢은 “태백이 궁사를 지어, 명황이 궁의 비단으로 만든 도포를 상으로 하사하였다(太白爲宮詞, 明皇賞賜以宮錦袍.)”라고 주석을 달았다.(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54쪽, 재인용) 郁賢皓가 《唐詩紀事》에 근거하여 시를 지은 신하에게 비단도포를 하사한 전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촉천무후가 龍門에 유람가서는 신하들에게 시를 지으라고 하고 먼저 시를 짓는 자에게 비단도포를 하사한다고 하였다. 東方虬가 먼저 완성하여 東方虬에게 하사하였다. 그 후 宋之間의 시가 아주 뛰어나 東方虬에게 준 비단도포를 빼앗아 宋之間에게 하사하였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455쪽), 《李白詩校注》에서는 또한 “杜甫의 <寄李十二白十二韻>에 ‘금수무늬 비단도포 하사받아 새로웠네’라고 했다. 즉 이때의 실제 일로, 이 시로 참고하여 증명할 수 있다(杜甫 <寄李十二白十二韻> 云獸錦奪袍新. 卽是時實事, 可與此詩參證.)”라고 하였다.(詹鏞,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54쪽에서 재인용)
- 39) 翻飛: 오르내리며 날아갔다 날아왔다 하다. 朱諫은 “높이 날아올라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言飛騰而在位也.)”라고 주를 달았다.(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54쪽, 재인용) 즉 여기에서는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 &lt;詳釋&gt;

漢成帝가 황제들이 遊獵하던 長楊苑에서 羽箭으로 많은 짐승들을 사냥해 와서 오랑캐에게 사랑을 하였다. 이 때 揚雄은 황제를 수행하여 갔다가 황제에게 <長楊賦>를 지어 바쳐 빛을 발하여 황제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황제는 <長楊賦>를 보고나서 친히 붓을 들어 그 글을 극력 칭찬하고 揚雄에게 어의를 선물하였다.

온천궁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랜 벗인 자네를 만났기에 황제에게 자네를 추천할 터이니 우리 함께 다른 날에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lt;解說&gt;

이 시는 앞 시 <駕去溫泉宮後贈楊山人>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황제를 따라 온천궁에 갔다 오다가 옛 벗을 만나 시를 지어 준 것이다. 이 시에서는 양웅을 자신에게 빗대어 묘사하면서 양웅처럼 자신도 천자에게 시를 지어 바쳐 칭찬받고 상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백의 특유의 심정이 절절히 드러나 있는 시이다.

이 시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6구까지로 漢代 揚雄이 황제가 長楊苑에서 사냥하는 것을 따라갔다가 長楊賦를 바쳐 황제로부터 칭찬을 받고 선물까지 하사받은 것을 통해 자신의 경우를 빗대고 있다. 둘째 단락은 끝 2구로 온천궁에 황제를 수종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옛 벗을 만나 기회가 되면 옛 벗을 황제에게 추천하여 함께 관직에서 승승장구하였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嚴羽와 劉孟이 評點한 《李太白集》에서 “이태백의 정은 넓은데, 또한 정을 표현함이 이처럼 고조되었다.”<sup>40)</sup>라고 하였으며, 이 책에서는 또한 “평이한 말이어서 깊은 의취는 없다”<sup>41)</sup>라는 明人의 批를 실었는데, 참고할 만하다.

www.kci.go.kr

40) 太白情曠，亦復情熱如此。

41) 淺語無甚意致。

### 2.3 제23수 황제의 수레가 溫泉宮을 떠난 뒤 은자 양씨에게 드림(駕去溫泉宮後贈楊山人)42)

少年落托楚漢間,43) 젊음 시절 초 땅과 漢水 일대에서 실의에 빠졌고  
 風塵蕭瑟多苦顏.44) 풍진 속 이리저리 떠돌며 근심어린 얼굴 많았네.  
 自言介叢竟誰許?45) 가시밭 내 앞길 누가 알아주랴 하며

42) 이 시의 제목이 둔황에서 발견된 《唐詩選》에는 <從駕溫泉宮醉後贈楊山人>으로 되어 있다. ○駕: 황제의 수레로, 皇帝를 가리키기도 한다. ○溫泉: 溫泉宮. 《新唐書·地理志》에 “(天寶) 6년에 溫泉을 華清宮으로 바꾸었다(六載, 更溫泉曰華清宮)”라는 기록이 있다. 華清宮은 지금의 화청지로 현재 陝西省 西安市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驪山에 있다. 玄宗이 天寶 원년(742)에서 3년(744)에 이르기까지 온천궁에 4차례 행차하였고 전해진다. ○楊山人: 명산대천을 유람하며 지냈던 은자로 여겨지며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당시 저명한 시인들과 교유가 많았다. 이백과도 교유한 뒤로 왕래가 많았다. 이백의 시 가운데 <送楊山人歸天台>·<送楊山人歸崇山>이 있는데, 이와 동일인물인 듯하다.

43) “少年落托楚漢間”句: 젊었을 때 초와 한수 유역에서 곤궁하게 지냈을 때를 말한다. ○落托: ‘落魄’과 같은 뜻. 뜻을 얻지 못하다. 《漢書·酈陸朱劉叔孫傳》의 “역이기는 陳留高陽(역주: 지금의 河南省 開封市 杞縣西南)사람이다. 독서를 좋아했지만, 집안이 가난하고 뜻을 얻지 못하여 의식을 해결할 생업이 없었다(酈食其, 陳留高陽人也. 好讀書, 家貧落魄, 無衣食業.)”에 ‘落魄’이 나오는데, 여기에 “정씨가 말했다. ‘魄은 그 음이 薄이다(鄭氏曰: 魄, 音薄.)’”라고 한 주가 달려 있다. 이에 대해 顏師古는 “落魄은 생업을 잃고 지위가 없는 것이니, 정씨가 말한 음이 옳다(落魄, 失業無次也. 鄭音是)”라고 하였다. 明 朱謀 《駢雅》 권2 <釋訓>에 “落魄·憤恨·侘傺는 뜻을 잃은 것이다(落魄·憤恨·侘傺, 失志也.)”라고 하였고, 清 吳玉搢 《別雅》에 “落魄·洛度·落度·樂託·打落·託落은落魄의 의미이다. 《史記·酈食其傳》에 ‘집이 가난하여 뜻을 잃어, 의식을 해결할 생업이 없었다’고 하였다. 應邵는 ‘뜻과 행함이 약해지고 나빠진 모양이다’라고 하였고, 晉灼는 ‘落薄·落託은 뜻이 같다’라고 하였다(落魄·洛度·落度·樂託·打落·託落, 落魄也. 《史記·酈食其傳》: ‘家貧落魄, 無以爲衣食.’ 應邵曰: ‘志行衰惡之貌也.’ 晉灼曰: ‘落薄·落託義同.’)”라고 하였다. 周次吉의 <幾個有趣的閩南語字詞之研究>《人文與社會學報》 제1권제10기, 2007년 7월, 義守大學通識教育中心)에 나오는 ‘落度’에 대한 분석 및 정리를 참고할 만하다.

44) “風塵蕭瑟多苦顏”句: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묘사한 것이다. ○風塵蕭瑟: 곤궁할 때 풍진 속에서 분주하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蕭瑟: 바람이 부는 소리.

45) “自言介叢竟誰許?”句: 자신의 앞길에 마치 가시밭길과 같아 마음속에 분만이 쌓인 것을 말한다. ○介叢: 즉 叢介의 뜻. 叢芥로도 쓰며, 薺芥와 같다. 원래는 작은 가시. 마음에 맺힌 감정, 응어리. 원한. 문장에서는 梗塞 즉 출사 길이 막힘을 뜻한다. 司馬相如 <子虛賦>의 “운몽과 같은 사냥터 8,9개를 받아들여도 그 가슴 속에는 겨자씨만큼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吞若雲夢者八九, 於其胸中, 曾不薺芥.)”에 ‘薺芥’의 용례가 있다. 《漢書·賈誼傳》에도 ‘薺芥’의 용례가 있는데, “자질구레한 일이나 무슨 의혹을 품을 만하겠는가?(細故薺芥, 何足以疑?)”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顏師古는 “薺芥는 작은 가시이다(薺芥, 小鯁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文選》 권2 張衡 <西京賦>의 “匪皆薺芥.”에는 ‘薺芥’의 용례가 있는데, 李善이 “張揖의 <子虛賦>에 대한 注에 ‘薺介는 가시이다’라고 되어 있다. 叢와 薺는 같다

長吁莫錯還閉關. 46)	장탄식하고는 쓸쓸히 문을 닫고 살았었지.
一朝君王垂拂拭. 47)	하루아침에 군왕께서 발탁의 은혜를 내리셨기에
剖心輸丹雪胸臆. 48)	일편단심으로 가슴 속 충정을 다 하러했네.
忽蒙白日迴景光. 49)	홀연 군왕의 은총을 받았기에
直上靑雲生羽翼. 50)	날개가 생겨 곧장 푸른 구름위로 올랐네.
幸陪鸞輦出鴻都. 51)	영광스럽게 군왕 수레 모시고 홍도문을 나서는데
身騎飛龍天馬駒. 52)	이 몸은 비룡 마구간 천마를 탔다네.

(張揖<子虛賦>注曰:‘帶介, 刺鯁也.’ 藁與帶同.)”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 구는 어떤 판본에는 “自言管葛竟誰許?”로 되어 있다. “自言介葛竟誰許?”로 되었을 때는 출사의 길이 막혀, 자기의 재능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음을 말하지만, “自言管葛竟誰許?”로 되었을 때는 “관중과 제갈공명과 같은 역량을 누가 알아주랴?”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관중과 제갈공명을 자신에 비유하며, 결국 자신을 알아 준 사람이 없었음을 말한다. 이백이 관중과 제갈공명을 동경했기 때문에 이 구로 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46) 莫錯: 쓸쓸하다. 朱諫은 “莫錯은 寂寞과 같다(莫錯, 猶寂寞也.)”(《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49쪽, 재인용)라고 하였고, 《李白集校注》에서는 “莫錯은 錯莫, 또한 索漠으로 모두 적막의 뜻이다(莫錯卽錯莫, 亦卽索漠, 皆寂寞之意.)”라고 하였다.(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49쪽, 재인용)
- 47) 垂: 존중을 받다. 인정을 받다. ○拂拭: 먼지를 제거하다.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먼저 먼지를 털어내기 때문에 ‘拂拭’은 은혜를 받아 발탁되어 쓰이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아름다운 바탕을 드러내다, 중시, 발탁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 48) 剖心: 정성을 나타내다. ○輸: 보내다. ○丹: 丹心. ○雪: 드러내다.
- 49) 蒙: 받다. ○白日: 皇帝를 가리킨다. ○迴: 되돌아 비추다. ○景光: 햇빛, 皇帝의 은총을 비유.
- 50) “直上靑雲生羽翼”句: 갑자기 지위가 급상승하였음을 비유한다.
- 51) 鸞輦: 황제가 타는 수레. ○鴻都: 漢代의 장서하는 곳. 東漢 靈帝 光和 元년에 鴻都門에 설치한 학교. 이곳에서 辭賦書畫 등을 전문적으로 익히고 나아가서 고급관직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翰林院을 가리킨다. 鴻都是 또한 장안을 가리키기도 한다. 王昌齡 <灞上閨居>의 “鴻都에 歸客이 있으니, 滋陽 마을에 하늘보고 누웠네(鴻都有歸客, 偃臥滋陽村.)”에 그 용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李雲逸이 “鴻都是 漢代 조정의 藏書하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왕창령이 봉직할 비서성을 가리킨다(鴻都, 漢代朝廷藏書之所. 此處代指昌齡供職之秘書省.)”라고 주석을 달았다. 溫庭筠 <俠客行>의 “홍도문을 나서려니, 흐린 구름 성결을 덮는구나(欲出鴻都門, 陰雲蔽城闕.)”에도 그 용례가 있다.
- 52) 飛龍: 唐代 궁중 마구간 이름. 당대에 궁중 마구간이 6개가 있었는데, 飛龍 마구간의 말을 최고로 여긴다. ○天馬: 준마. ‘飛龍’ 및 ‘天馬’에 관한 전고가 다음의 전적에 보인다. 《史記·大宛列傳》에서는 “예전에 천차(역주: 漢武帝)가 《周易》을 보고 점을 쳐보게 했는데, ‘神馬가 서북쪽에서 올 것이다’라는 점괘가 나왔다. 그런 후에 烏孫馬를 얻었는데, 좋아서 그 이름을 天馬라고 지었다. 이어서 大宛의 汗血馬를 얻었는데, 더욱 긴장했으므로 烏孫馬의 이름을 西極으로 짓고, 大宛의 汗血馬의 이름을 天馬로 했다(初, 天子發書《易》云‘神馬當從西北來’, 得烏孫馬, 好, 名曰‘天馬’. 及得大宛汗血馬, 益壯, 更名烏孫馬曰‘西極’, 名大宛馬曰‘天馬’云.)”라고 하였고, 《漢書·西域傳》에 서는 “大宛國의 別邑에는 70여개의

王公大人借顏色, 53) 왕공대신들 숙연히 공경하는 안색을 보였고  
 金章紫綬來相趨, 54) 금색인장과 자주빛인끈 찬 고관들 뛰어나와 받  
 들었네.  
 當時結交何紛紛, 55) 당시 서로들 교분 맺으려 했던 이들 얼마나 많았  
 던가  
 片言道合唯有君, 56) 한 마디말로도 도가 맞는 이 그대뿐이었네.  
 待吾盡節報明主, 57) 내가 충절 다해 군왕에게 보답하고  
 然後相攜臥白雲, 58) 그런 후 서로 손잡고 흰 구름 속에 누워보세.

성이 있었다. 이곳에서 좋은 말이 많이 나왔다. 말은 피처럼 맘을 흘렸다. 그 조상을 말하  
 자면, 천마의 종자이다(宛別邑七十餘城, 多善馬。馬汗血, 言其先天馬子也.)"라고 하였고,  
 《新唐書·兵志》에서는 "그 후에 궁중에 또 비룡 마구간을 증설했다(其後禁中又增置飛龍  
 廄.)"라고 하였다. 그리고 《說郛》 권6에는 (唐) 李肇 《翰林志》의 "學士가 처음 한림원  
 에 들어가면 마굿간의 말 한필을 내렸는데, 이를 長借馬라고 한다(學士初入院, 賜中廄馬  
 一匹, 謂之長借馬.)"가 인용되었다. '長借馬'는 唐代에 翰林學士가 翰林院에 처음 들어갔을  
 때 官府에서 내주는 말이다. 이백의 시 <玉壺吟>의 "궁궐에 들어가 여러 번 비룡마를 바  
 꾸었는데, 산호와 백옥 장식의 채찍을 내리셨네(朝天數換飛龍馬, 敕賜珊瑚白玉鞭.)"와  
 <答崔秀才五松見贈>의 "비룡의 두 천마를 하사하셨으니, 황금빛 머리장식에 백옥 안장  
 이었네(敕賜飛龍二天馬, 黃金絡頭白玉鞍.)"에도 그 용례가 있다.

- 53) 借顏色: 공경하는 안색을 보이다. 郁賢浩는 이 구를 "왕공대인이 나에게 체면을 세워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郁賢浩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454쪽)라고 하였고, 朱謙은  
 "왕공대신들 모두 나에게 안색을 주었는데, 숙연하게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52쪽, 재인용)라고 하였고, 이영주 등은 "왕공과  
 대인들이 광채를 빌려주고"(이영주 등 역주, 《이태백시집》(3)(學古房, 2015년, 312쪽)  
 라고 하였다. ○借: 주다. ○顏色: 공경하는 안색.
- 54) 金章紫綬: 금색인장과 자주빛인끈의 뜻으로 조정의 높은 관리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  
 金章: 구리로 만든 인장. 李善은 "金章은 구리로 만든 인장이다(金章, 銅印也.)"라고 하였  
 다. ○紫綬: 자색으로 인장을 매는 끈. 당시에 자색인장 끈을 맨 사람은 최고의 관리였다.  
 《漢書·百官公卿表上》에 "相國·丞相은 모두 진대의 관리인데, 금인장과 자색인끈을 차  
 고서 천자를 도와 만 가지 정무를 처리한다. ……太尉·秦官은 금색인장과 자주빛인끈을  
 차고서 武事에 관한 것을 담당하였다(相國·丞相, 皆秦官, 金印紫綬, 掌承天子助理萬機,  
 ……太尉, 秦官, 金印紫綬, 掌武事.)"라고 하였다. ○趨: 뛰어나와 받들다.
- 55) 紛紛: 어지러운 모습, 많은 모습을 형용.
- 56) 君: 楊山人을 가리킨다.
- 57) 盡節: 충성이나 절개를 다하다. 《管子·形勢解》의 "들어와서는 농사에 힘써 열심히 노력  
 하여 창고를 채우고, 나아가서는 목숨을 바쳐 사직을 안정시킨다(入則務本疾作, 以實倉廩.  
 出則盡節死敵, 以安社稷.)." 《魏書·呂羅漢傳》의 "스스로 절개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적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自非盡節竭誠, 將何以垂名竹帛?)" 및 (漢)桓  
 寬《鹽鐵論·非鞅》의 "신하가 절개를 다하여 목숨을 바친다(人臣盡節以徇名.)에 그 용례  
 가 있다.

## &lt;校記&gt;

제목의 '駕去'가 敦煌殘卷<sup>59</sup>)에는 '從駕'로 되어 있다. '宮'자가 咸本·蕭本·王本·郭本·胡本에는 없다.

제1구의 '托'이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嚴評本<sup>60</sup>)·全唐詩本·王本에는 '魄'으로 되어 있다. 敦煌殘卷에는 '拓'으로 되어 있다.

제3구의 '介薑'이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敦煌殘卷에는 '管葛'로 되어 있다.

제4구의 '莫錯'이 敦煌殘卷에는 '錯漠'으로 되어 있다.

제5구의 '君王'이 敦煌殘卷에는 '逢君'으로 되어 있다.

제11구의 '人'이 朱本에는 '臣'으로 되어 있다. 또한 '借'가 咸本·蕭本·玉本·郭本·嚴評本에는 '惜'으로 되어 있다.

제12구의 '章'이 咸本·蕭本·郭本·全唐詩本에는 모두 '璋'으로 되어 있다. 劉本에는 "金章이 통용되는 판본에는 金璋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金章, 世本作金璋, 非.)"라는 주가 있다. 敦煌殘卷에는 '印'으로 되어 있다. 또한 '趨'가 元刊二十六卷本<sup>61</sup>)·敦煌殘卷에는 '趨'로 되어 있는데, '趨'는 '趨'의 속자이다.

제16구의 '然後相攜' 아래 원래 송측본에서 "어떤 곳에는 攜手滄洲로 되어 있다(一作攜手滄洲)"라는 주가 있지만, 咸本·蕭本·王本·郭本에는 이 네 글자에 대한 주가 없다.

## &lt;詳釋&gt;

내가 젊었을 때 楚 땅과 漢水 일대에서 실의에 빠져 낙담하고, 도처에서 냉대를 받으며 풍진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근심이 많았네. 내 앞길 마치 가시밭길 같아 마음속에 쌓인 분만을 누가 알아주랴 스스로 말하며, 장탄식하며

58) 臥白雲: 산림에 들어가 은거하겠다. 朱諫은 "臥白雲은 은거함이다(臥白雲, 隱也.)"라고 하였다.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52쪽, 재인용)

59) 鳴沙石室에서 영인한 敦煌殘卷 唐寫本 《唐人選唐詩》.

60) 明崇禎3年(서기 1630년)에 嚴滄浪과 劉會孟이 評點한 《李杜全集》 중 《李太白集》 22권.

61) 元刻 《唐翰林李太白集》 26卷.

쓸쓸히 문을 걸어 잠그고 지냈다.

그러던 가운데 하루아침에 군왕께서 돌아보시고 발탁의 은혜를 내리셨기에, 나는 전심전력으로 충심을 다하고자 했다. 홀연히 군왕의 햇빛이 비추어 지자, 나는 날개가 생겨서 하늘 위로 곧장 날아오르게 되었다. 영광스럽게 천자의 수레를 모시고 홍도문을 나서는데, 나는 비룡 마구간에서 기르는 천마를 탔다. 이 때 왕공대인들 모두 숙연히 공경하는 안색을 나타내었고, 금색인장과 자주 빛인끈을 찬 고관들도 분주하게 뛰어나와 나를 받들었다.

당시에 나와 친교를 맺고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직 그대만이 나와 진정으로 뜻이 통하고 도가 일치한다. 내가 충절을 다해 군왕의 은혜에 보답한 뒤에 나는 그대와 함께 은거하며 흰 구름 속에 눕고자 한다.

#### <解説>

唐 玄宗은 驪山 溫泉宮을 4차례 방문하였다. 天寶元年(742년)10월, 2년(743년)10월, 3년(744년) 정월 및 10월이다. 천보 2년 10월에 현종이 여산 온천궁을 방문할 당시에 이백은 長安에서 翰林供奉의 예우를 받고 있었다. 이백은 현종을 모시고 온천궁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이 시를 써서 성이 楊씨인 은사에게 주었다.

첫 4구는 젊었을 때 安陸일대에서 유랑하며, 곤궁하고 처량함을 느꼈을 때를 회고하며, 비록 관중·제갈량과 같은 역량을 가졌지만 자신을 알아 줄 사람이 없어 앞길이 막막함을 느꼈고, 단지 장탄식하며 적막하게 문을 닫고 타인과 왕래가 없었음을 회고하였다. 시어 가운데 '落魄'·'風塵'·'蕭瑟'·'多苦顏' 등은 이러한 감상을 드러낸 것이다.

중간8구는 '得志'의 회열과 자공의 감정이 언어에 흘러 넘쳐, 첫4구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현종이 자신을 알아주고 발탁하여 줌으로써 한림봉공의 예우를 받았기에 자신은 현종에게 전심전력으로 충정을 바쳐, 군왕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다. 시인은 '垂拂拭'을 빌어 현종의 발탁을 받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현종의 은총을 받아, 자기가 마치 날개가 생겨 곤장 푸른 구름위로 올라간 듯한 것을 묘사하였다. ‘白日’·‘景光’·‘直上’·‘青雲’·‘生羽翼’ 등은 모두 이를 나타내는 시어이다. 또 군왕을 모시고 온천궁을 갈 때, 비룡 마구간의 준마를 타고 나서자 왕공대신 및 조정대신들 모두가 받들어주는 것을 묘사하였다. ‘騎飛龍’·‘天馬駒’·‘借顏色’ 등은 시인이 정치무대에서 得意하고자 하는 강한 내면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 4구는 자신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당시 자신과 교제를 한 사람이 많지만, 오직 진정으로 뜻이 통하고 도가 합치되는 사람은 楊山人이다. 시인은 盡忠報國의 정치이상과 功成身退의 인생이상을 드러내었다.

이 시의 언어는 쉽고 간결하다. 구조는 엄밀하고 대비는 선명하며 층차가 분명하다.

## 2.4 곽장군에게 드림(贈郭將軍)<sup>62)</sup>

將軍少年出武威,<sup>63)</sup> 장군은 어릴 때 무위 땅을 나와  
入掌銀臺護紫微.<sup>64)</sup> 은대에 들어가 자미궁을 지키네.

62) 郭將軍: 성명 미상. 혹자는 郭子儀라고 하나, 郭子儀는 시에서 언급된 武威 지역에서 활동한 적이 없어, 郭子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63) 武威: 唐代의 涼州로, 唐代에는 武威郡으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지금의 甘肅省 武威市이다. 《舊唐書·地理志》의 <河西道涼州>에 “隋代의 武威郡, ……천보 원년에 武威郡으로 바뀌었다(隋武威郡, ……天寶元年, 改爲武威郡.)”라고 하였다.

64) 銀臺: 銀臺門을 지칭하는 것으로 長安宮에 있던 궁문의 명칭. 唐代 때 翰林院, 學士院이 모두 銀臺門 근처에 있어서 翰林院을 銀臺門이라고도 불렀다. 《雍錄》에 실려 있는 《六典·大明宮圖》에 “紫宸殿 옆에 右銀臺門과 左銀臺門이 있었다(紫宸殿側有右銀臺門·左銀臺門.)”라고 하였다. ○紫微: 紫微宮. 원래 紫微는 紫微星을 이야기하는데, 이 紫微星은 큰곰자리 부근에 있는 紫微垣의 별 이름이다. 북두칠성의 동북쪽에 있는 열다섯 개의 별 가운데 하나로, 북극성이라고도 한다. 옛 사람들은 북극성을 천자의 별이라고 인식하여, 천자가 사는 곳을 紫微宮이라고 하였다. 李白의 시 <蟬蛻薄太清>의 “무지개가 자미궁에 들어가니, 해는 아침의 환한 빛을 잃었네(蟬蛻入紫微, 大明夷朝暉.)”와 <羽檄如流星>의 “밝은 해는 자미궁에서 빛나고, 삼공들이 보좌해 권력을 잘 운용하네(白日曜紫微, 三公運權衡.)”에도 나온다.

平明拂劍朝天去, 65)

날이 밝으면 검을 차고 천자를 알현하러 가서

薄暮垂鞭醉酒歸. 66)

망거미가 질 무렵 말채찍 늘어뜨리고 술 취한 채 돌아오네.

愛子臨風吹玉笛,

사랑하는 아들은 바람 맞으며 옥 피리를 불고

美人騰月舞羅衣. 67)

미녀는 달빛 아래서 비단옷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네.

疇昔雄豪如夢裏, 68)

왕년의 영웅호기는 꿈속에만 있는 양

相逢且欲醉春暉. 69)

그대 만나 잠시 봄볕에 취하고 싶구나.

<校記>

제1구의 “將軍少年出武威”은 송축본에 “한편 將軍豪蕩有天威라고도 한다(一云將軍豪蕩有天威.)”라고 되어 있는데, ‘威’, ‘一’, ‘蕩’ 세 자가 송축본에 빠져 있어 詹鏞이 咸本·文苑英華<sup>70)</sup>·胡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咸本·蕭本·玉本·郭本에는 “一云將軍豪蕩有天威.”라는 주석이 없다. 劉本에서는 “少年出武威.”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豪蕩有英威라고 한다(一作豪蕩有英威.)”라고 주석을 달았고, 胡本과 王本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豪蕩有天威라고 한다(一作豪蕩有天威.)”라고 주석을 달았다. 文苑英華에서는 “豪蕩有英威.”라고 되어 있다.

제2구의 ‘入’은 文苑英華에서는 ‘昔’으로 되어 있다. 胡本과 劉本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昔으로 되어 있다(一作昔.)”라고 주석을 달았다.

제4구의 ‘垂’는 송축본에서 빠져 있어 詹鏞이 咸本과 蕭本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고, 같은 구의 ‘醉酒’는 《李詩選》에서는 ‘信馬’로 되어 있다.

65) 平明: 해가 돌아 밝아올 무렵. ○拂: 차다. 지나다. ○朝: 알현하다.

66) 薄暮: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나 그런 때. 망거미. 황혼.

67) 羅衣: 얇은 비단으로 지은 옷.

68) 疇昔: 이전, 오래지 아니한 과거의 어느 때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禮記·檀弓》의 “지난 밤 꿈속에서 두 기둥사이에 앉아서 제례를 올렸다(於疇昔之夜, 夢坐奠於兩楹之間.)”에 그 용례가 있다.

69) 春暉: 봄볕. 봄철의 따뜻한 햇빛. 李白 <惜餘春賦>의 “아지랑이 길 가로막으며 가고, 따스한 봄볕 그물이 사람을 붙잡네(見遊絲之橫路, 網春暉以留人.)”에 그 용례가 있다.

70) 明隆慶 간행본에 中華書局 영인본을 참고한 《文苑英華》.

## &lt;詳釋&gt;

곽장군은 어릴 때 武威 땅에서 이민족들과 싸우며 전공을 세우다가 長安宮에 있는 銀臺門으로 들어가 자미궁을 지키며 천자를 보위하였다. 해가 돌아 밝아올 무렵 곽장군은 검을 차고 천자를 알현하러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에는 퇴근하고 술을 마시러 갔다가 술에 취해 말을 탄 채 말채찍을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곽장군이 애지중지하는 아들은 바람부는 가운데 옥 피리를 불고, 곽장군의 아리따운 부인은 달빛 아래서 얇은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춘다.

곽장군의 왕년의 영웅적 기개는 이제 꿈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 나 이백은 뜻을 잃은 곽장군과 만나 잠시라도 함께 봄별 속에서 술을 마시며 취하고 싶다.

## &lt;解說&gt;

이 시는 李白이 郭將軍의 득의와 실의를 묘사함을 통해 자신의 회재불우를 드러낸 시이다. 이 시의 창작연대는 天寶 2년(743년)으로 翰林供奉 시절 때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4구로 郭將軍의 과거의 중군과 현재의 황궁 수비를 묘사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제5구에서 제6구로 郭將軍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제7구에서 제8구로 郭將軍과 함께 술 마시고 취해 근심을 잊어먹기를 원하고 있다.

翟蛻園·朱金城은 《李白集校注》에서 “시 가운데 ‘入掌銀臺護紫微’구가 있는데, 이것은 곽장군이 당시에 諸衛將軍일 때이다. 《舊唐書·職官志》에 ‘左右衛將軍의 직은 궁정호위를 통솔하는 법을 가지고, 그 소속의 의장대를 감독하며, 모든 관서의 직무를 총괄한다’라고 하였다. 사실 당 중엽 때, 이것은 무인을 한직에 두는 것과 같을 뿐이다. 《舊唐書·王忠嗣傳》에 ‘만약 현명한 군주가 나를 질책한다 해도, 어찌 금품나 羽林將軍의 직분을 잃고서 조정에 돌아와 쫓



黃河落天走東海,	황하가 하늘에서 떨어져 동해로 달리다가
萬里寫入胸懷間. <sup>76)</sup>	만 리 강물 그대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네.
身騎白龍不敢度, <sup>77)</sup>	나는 흰 자라 타고도 감히 건너지 못하니
金高南山買君顧. <sup>78)</sup>	남산 높이와 같은 황금으로 그대의 생각해 주는 정을 바라다네.
徘徊六合無相知, <sup>79)</sup>	온 세상 다녀도 알아주는 이 없기에
飄若浮雲且西去.	뜬 구름처럼 정처 없이 서쪽으로 가려하네.

76) “黃河落天走東海，萬里寫入胸懷間。”二句：황하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으로 裴十四의 흥회가 큰 것을 비유하였다。○落天：黃河가 발원하는 고지，그 낙차가 매우 크고，수류가 빠르며，나는 듯 흘러서 곧장 아래로 흐른다。그 기세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하다。○寫：쏟다。瀉와 같다。

77) “身騎白龍不敢度”句：裴十四의 재주와 학문，가슴의 깊이와 넓음은 이백 자신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음을 비유하였다。○白龍：흰 자라。《楚辭·九歌·河伯》의 “흰 자라 타고 文魚(역주：날개 달려 날 수 있는 물고기)쫓아，그대와 황하가의 섬에 노니면(乘白龍兮逐文魚，與女遊兮河之渚。)”에 그 용례가 있다。

78) “金高南山買君顧”句：이 구는 황금을 남산처럼 높이 쌓아야 裴十四의 한 번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이백이 裴十四를 높이 여기는 것이다。여기는 鄭詹의 ‘千金難顧’의 고사를 활용하였다。그 고사는 《列女傳·節義傳》에 보인다。 “鄭詹은 정나라 여자로 秦나라 사람이 楚나라로 딸을 시집보낼 때 달려 보낸 몸종(鄭女之羸媵)으로 楚나라 成王의 부인이 되었다。처음에 成王이 宮中 樓臺에 올라 후궁들을 둘러보고 있었다。모든 후궁들이 왕을 우리러 보았는데，오직 子皙만 직행하며 쳐다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행하는 걸음도 변함이 없었다。성왕이 ‘걷는 후궁은 나를 돌아보라’ 해도 子皙는 돌아보지 않았다。성왕이 ‘돌아보아라。내가 너를 부인으로 삼으리라’고 해도 子皙는 돌아보지 않았다。성왕이 다시 말하길 ‘쳐다보라。그러면 내가 너에게 또 천금을 줄 것이며 너의 부형들을 관직에 봉하겠도다’라고 하였다。子皙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그러자 성왕이 누대에서 내려와 子皙에게 물으면서 ‘부인이란 자리는 가장 무거운 자리이고 관직에 봉함은 후한 목으로 한번 쳐다봄으로 그것을 얻는데 끝내 돌아보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말했다。子皙가 ‘저는 女子의 행동거지는 몸을 단정히 하고 얼굴을 부드럽게 가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지금 왕께서는 누대 위에 계시는데 제가 돌아보는 것은 여자로서 절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돌아보지 않다가，夫人으로 높여주시고 저의 父兄들을 관직에 봉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돌아보다면 그것은 제가 부귀를 탐하고 이익을 즐김으로써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어찌 왕을 섬길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였다。성왕은 기뻐하며 ‘홀륭하오’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그녀를 夫人으로 삼았다。(鄭詹者，鄭女之羸媵，楚成王之夫人也。初，成王登臺，臨後宮，宮人皆傾觀，子皙直行不顧，徐步不變。王曰：‘行者顧。’子皙不顧，王曰：‘顧，吾以女爲夫人。’子皙復不顧，王曰：‘顧，吾又與女千金而封若父兄子。’詹遂行不顧。於是王下臺而問曰：‘夫人，重位也。封爵，厚祿也。壹顧可以得之，而遂不顧，何也?’子皙曰：‘妾聞婦人以端正和顏爲容。今者，大王在臺上而妾顧，則是失儀節也。不顧，告以夫人之尊，示以封爵之重，而後顧，則是妾貪貴樂利以忘義理也。苟忘義理，何以事王?’王曰：‘善。’遂立以爲夫人。”

79) 六合：천지사방, 온 세상.

## &lt;校記&gt;

제목의 ‘十’이 郭本에는 ‘小’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제4구의 ‘入’자가 송축본에는 ‘又’로 잘못되어 있다. 다른 판본에는 모두 ‘入’으로 되어 있다.

제7구의 ‘徘徊’자가 咸本·蕭本·玉本에는 ‘裴’자로 되어 있다.

## &lt;詳釋&gt;

아침에 그대를 보니, 마치 용모가 뛰어난 쯤나라의 배숙칙을 보는 듯하니, 마치 옥산을 걸어갈 때 광채가 사람을 비추는 듯하다. 그대의 가슴은 깊고 광대하여 마치 황하가 하늘에서 떨어져 곧바로 동해로 들어가서, 만 리나 되는 강물이 분등하며 흐르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 깊고 드넓은 가슴은 설사 내가 흰 자라를 탄다고 해도 가로질러 건너 갈 수 없이 넓다. 나는 남산 높이와 같은 황금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그대의 정을 얻기 바라고 있다. 그대는 온 천지를 떠돌아다녀도 알아주는 이 없기에, 하늘의 뜬 구름처럼 정처 없이 서쪽으로 가야만 하는 처지이다.

## &lt;解說&gt;

이 시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郁賢皓는 開元(713-741) 초엽 처음 장안에 들어와서 終南山에 은거하였을 때 지은 것 같다고 하고, 安旗는 開元18년(730)에 지은 것으로 보았다. 이 시는 쯤의 名士인 裴叔則으로 裴十四를 비유하여, 裴十四의 容儀가 준수하고 도량이 넓으며 인품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못해 뜬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裴十四와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또한 “金高南山 買君顧”로써 떠나가는 배십사에게 자신을 생각해달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구는 자신을 낮추고 배십사를 높이 존송하는 감정을 담고 있다.<sup>80)</sup>

80) 郁賢皓는 《李白選集》에서 “이 시를 지은 목적은 ‘買君顧’에 있고, 군왕의 부름을 받아서 출사하는 것을 희망하였지만 결국에는 부득불 ‘徘徊六合’하게 되었고, 종남산을 떠나 서쪽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57쪽,

전체 시는 裴十四의 용의가 뛰어난, 그 흥회의 호탕함, 지음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백은 裴十四에게 자아의 형상을 투영시키고, 자아의 감정을 이입시켰다. 때문에 시에서 표현한 裴十四는 이백 자아의 표상이다. 동일한 성씨 裴叔則으로 裴十四를 비유한 것, 鄭子晉의 '千金難顧'를 전고로 활용한 것은 이 시가 '思量'의 산물임을 알게 한다.

### 3. 결론

이상 5수 작품은 각각 崔叔封형제·郭將軍·隱者인 楊州·옛 친구·裴十四에게 보낸 시이다. 제22수 <讀諸葛武侯傳書懷贈長安崔少府叔封昆季>는 시인이 崔叔封형제에게 자신은 현재 초야에 묻혀있지만 뜻은 經國濟民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특히 역대인물을 들어 崔叔封형제 및 자신을 비유한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比喻를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었다. 역대인물 가운데 諸葛亮·管仲은 이백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들이다. 제23수 <贈郭將軍>은 郭將軍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전체 시는 처음에는 得意했지만 나중에는 失意한 장군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得意와 失意, 과거와 현재의 對比는 曠將軍의 형상을 더욱 생동적으로 부각시킨다. 이로써 독자로 하여금 모종의 감정을 유발시킨다. 제24수 <駕去溫泉宮後贈楊山人>은 이백이 현종을 모시고 온천궁에 가는 희열, 득의의 감정을 묘사한 것이다. 이 시의 특색은 그 층차가 분명하고 대비가 선명한 것이다. 곤궁, 득의, 이상에 대한 묘사가 분명하고 선명하다. 제25수 <溫泉侍從歸逢故人>은 이백이 현종을 따라 온천궁에 갔다가 돌아올 때 옛 친구를 만나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이 작품의 특색은 揚雄으로 자신을 비유하여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것, 獻賦로 쌍관의 뜻을 드러낸 것, 작품 전체에 得意의 희열

의 감정이 흘러 넘쳐, 다른 작품에서 느끼는 근심을 말끔히 씻어낸 것 등이다. 제26수 <贈裴十四>는 裴十四의 容儀가 뛰어남, 그 흥회의 호탕함, 지음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백은 裴十四에게 자아의 형상을 투영시키고, 자아의 감정을 이입시켰다. 때문에 裴十四은 이백의 표상이다. 이 작품의 典故활용은 매우 적확하지만, 다소 苦心의 사유 결과로 여겨진다.

李白의 이러한 '贈詩'는 모두 시를 받는 이를 칭송하고 더불어 자신의 역량과 회재불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자신의 천거를 간절히 바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 參考文獻 >

- 王琦 輯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瞿蛻園·朱金城 校主,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韓嬰 著, 許維通 集釋, 《漢詩外傳集釋》 권9, 北京: 中華書局, 1980.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郁賢皓 主編, 《李白大辭典》, 桂林: 廣西教育出版社, 1995.  
 詹鐸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陳貽煥 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蕭士贊, 《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南京: 鳳凰出版社, 2017.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 서울: 學古房, 2015.

## &lt; Abstract &gt;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bai's <Presented Poems>(5)  
— From The 22th Poem to The 26th Poem—

Cho, Deukchang · Cho, Sungchun

This paper translates and contemplates the five poems of Li Bai(李白). The first poem tells about the person who recognized and appreciated him as the one to save the world, and showed a strong desire of Li Bai for recommendation for public office and possible accomplishment. The second poem reveals his misfortune despite possessing extraordinary talent through describing the triumph and dejection of General Guo(郭將軍). The third poem, in the first half, depicts how he was in despair before entering the court and, towards the middle, how he escorted the emperor to the Hot Spring Palace(溫泉宮) after joining the court. In the latter half, it expresses that the only person that truly had a mutual understanding with him and agreed with his way was hermit Yang(楊山人). The fourth poem reveals his triumphant feeling earnestly, alluding himself to Yang Xiong(揚雄), to show that, like him, Li Bai himself was also praised and rewarded by composing poems dedicated to the emperor. The fifth poem praises the great magnanimity and noble personality of Pei Shisi, while expressing Li Bai's own feelings of regret that Pei Shisi(裴十四) wanders about aimlessly like a drifting cloud as the world does not recognize his value.

Key words: poem, Li Bai(李白), General Guo(郭將軍), Hot Spring Palace(溫泉宮), hermit Yang(楊山人), Yang Xiong(揚雄), Pei Shisi(裴十四)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4. 28	2019. 5. 10	2019. 5. 20	2019. 5. 26	2019. 6. 30

